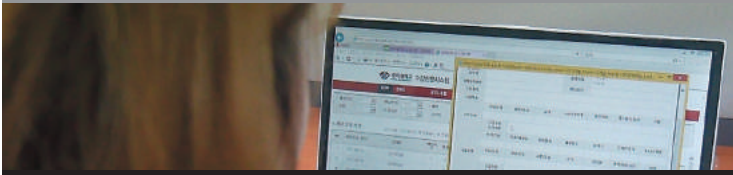


3» 강의계획서 게시율 조사



6» 신입 대외협력부총장 인터뷰



8»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자원봉사 르포



비가 와도 씩씩한 새내기들의 발걸음

2018학년도 입학식이 지난 28일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다. 김지원(한국어학 2018) 씨는 “날씨가 좋지 않지만 예쁜 학교에서 입학식을 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조인원 총장은 “사유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축사를 전했다. (사진=이후승 기자)

사학연금 일부 학교가 부담 할 듯 추가 자금 없을 시 교육부 승인 있어야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우리학교가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2018학년도 법정부담전입금이 21.3억 원 줄면서 사학연금 일부까지 대학본부가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2018학년도 법정부담전입금은 89.3억 원으로, 2017년 추경예산보다 21.3억 원 감소했다. 재정예산처는 1월에 열린 제7차 대학평의회에서 “사학연금 사용자부담금 등이 감소됐기 때문”이라고 법정부담전입금 감소의 이유를 밝혔지만, 법인의 재정악화가 실질적인 이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정부담전입금은 계속 문제가 됐다. 2012년까지는 법인이 100%를 부담해왔지만, 2013년 99.9%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4년 65.2%, 2015년 59.4%로 큰 폭으로 감소했고 2016년, 2017년 역시 증가 추세

없이 60%선을 유지했다. 2014년 당시 법인은 “재정문제로 직원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밝힌 바 있다. 2014년 이전까지는 법인이 사학연금, 건강보험료를 모두 부담했지만,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해 사학연금만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의 일부분 또한 학교가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재정예산처 이승민 계장은 “만약 추가경정예산 때 법인으로 부터 사학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2018학년도 회계 정산 때 교육부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없이도 법인이 대학으로 부담을 넘길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이 사학연금까지 부담하기 위해선 학교경

영기관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자금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지출해야 할 교원법정부담금은 123.4억, 직원법정부담금은 51.8억이다. 법정부담전입금 89.3억 원을 제외한 85.9억 원은 결국 우리학교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재정에 산처는 “일단은 비등목급 회계에서 지출할 예정이지만 부담이 되는 한다”며 “올해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법정부담전입금을 확충해달라고 법인에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4년 이후 법인은 경상비전입금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지만, 금액이 크지는 않다. 작년 경상비전입금은 173억 원이었지만, 경희의료원에서 부담해야 하는 임상교수 월급 161억 원을 제외한 순수 경상비전입금은 12억 원에 그쳤다. 이후 강동경희대병원

의 자금수지가 개선돼 약 40억 원을 우리학교로 추가지출 했지만, 올해도 이 같은 ‘짹짹 자금’이 생기지 않을 경우 경상비전입금의 유입은 어려워 보인다.

학교법인 경희학원 측은 “수년째 수십억 씩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 이기에 수익 확충을 위해 수익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지만, 몇 년째 반복된 대답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덧붙여 “임대업, 장례식장업 등과 함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출자한 법인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금 사정 상 사학연금을 다 부담하지 못하게 됐는데, 자금 사정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추경 때가 돼서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학연금을 계속 대학이 책임지게 할지에 대한 확답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THE 아시아 종합대학 40위 지난해 보다 4단계 하락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우리학교는 지난 6일 발표된 ‘THE 아시아 종합대학 순위’에서 지난해 36위에서 4단계 떨어진 40위를 기록했다. 사립대학 순위로는 5등이다. 지난해 38위로 우리학교보다 2단계 떨어진 한양대는 올해도 자리를 지키며 우리학교보다 2단계 앞섰다.

▲교육여건(25%) ▲연구(30%) ▲논문피인용도(30%) ▲국제평판(7.5%) ▲산학협력수입(7.5%) 5개 지표에서 종합 45.8점을 기록했다. 지난해 종합점수 45.7점보다 0.1점 높은 수치지만 눈에 띄는 상승폭이 없었고, 타 대학의 지표 점수가 상승함에 따라 순위가 하락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육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표별 상위 10위에 들었다. 국제화 부분은 54.3점으로 4위를 기록하며 지난해 51.5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3,6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학생 규모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교류가 심화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학협력 수익 부문에서 지난해 보다 2.9점 상승한 82.2점을 기록하며 7위에 올랐다.

미래정책원은 산업체 연구비 수의 증대와 기술이전 수입금 증대를 산학협력 점수 상승 이유로 꼽았다. 미래정책원은 “산업체 연구비 수주가 전년 대비 15% 상승했으며, 대학 기술경영촉진사업인 TMC 사업과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인 BRIDGE 사업을 통해 기술 이전이 활성화 됐기 때문”이라고 밝

혔다. 또한 “산학협력 기반이 조성되어 기업체와 공동연구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연구 실적은 지난해 43.3점과 비슷한 44.6점을 기록한 반면 논문 피인용도는 지난해 48.5점보다 2.5점 떨어진 46점이었다. 지난해 9.3점 향상으로 순위 상승의 주된 요인이었던 논문 피인용도 점수가 올해는 오히려 떨어지며 전체 순위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교육여건은 33.5점으로 국내 대학 10위에 든 타 대학의 평균 점수 48.85점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우리학교를 포함하여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대학은 고려대(48.8), UNIST(27점), 한양대(40.7), GIST(45.6) 5곳이지만, UNIST를 제외하고는 우리학교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미래정책원은 이번 순위평가를 두고 “연구의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정책이 시행되어 논문 피인용도가 떨어진 것 같다”며 “작년대비 나머지 지표에서는 점수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교육여건 지표에 대해서는 “교육여건 지표는 ▲학사학위수여자 대 박사학위 수여자 비율 ▲교원당 박사학위 수여자 수 ▲교원당 학생수로 구성된 것이 있다”며 “학사학위수여자 대 박사학위 수여자 비율이 11%로 주요대학 15~3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교원당 박사학위 수여자 비율이 27.1%로 주요대학 35~50%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THE 대학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대학명	아시아 순위	종합 점수	논문 인용도	산학 협력	국제 인지도	연구 실적	교육 환경
1	서울대	9	66.3	60.6	79.8	34.1	74	69.5
2	KAIST	10	65.4	70.4	100	35.6	63.7	60
3	포스텍	12	63.7	76.4	99.8	34.3	57.5	54
4	성균관대	13	63.4	69.5	93.7	44.7	60.4	56.2
5	연세대	20	56.1	46.1	99.2	54.6	58	53.2
6	UNIST	22	55.4	95.9	66	47.9	37.8	27
7	고려대	24	54.5	49	97.7	49	55.3	48.8
8	한양대	38	47	41.9	84.7	56.4	45.5	40.7
9	GIST	39	46.2	40.9	66.8	34.4	49.8	45.6
10	경희대	40	45.8	46	82.2	54.3	44.6	33.5

‘책임부총장은 누구?’ … 미래정책원 “폐지는 아니다”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지난해 구성원과 마찰을 빚었던 책임부총장제가 한군데 대외협력 부총장이 보직해임되면서 책임부총장직은 공석이 됐다. 그러나 책임부총장제도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미래정책원의 설명이다. 제도 도입을 주도했던 미래정책원은 “기존에 책임부총장이 담당하던 결재선과 역할에 대한 조정은 이뤄지겠지만, 제도 폐지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책임부총장제도는 작년 10월 ▲책임부총장 중심의 실행체계 전면

화 ▲부총장단과 미래정책원, 총장실 간 유기적 정보 공유 및 논의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당시 교수회의는 이 제도에 대해 “우리 대학이 처한 고질적인 인사적폐를 총망라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후 지난 2월 9일자로 책임부총장을 맡았던 한군데 대외협력부총장이 보직해임되면서 책임부총장직이 공석이 됐다. 일각에서는 제도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책임부총장제가 신설될 당시인 지난해 10월 미래정책원 권범석 부원장은 “책임부총장

의 대외적인 직위는 대외협력부총장”이라고 말했다기 때문이다.

권 부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새로운 대외협력부총장은 책임부총장의 책임과 권한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신입 대외협력부총장의 역할에 책임부총장의 역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4명의 부총장단 중 책임부총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총장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앞으로 책임부총장제도의 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미래정책원은 “거버넌스와 제도는 환경 변화와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고려하여 수

정·발전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검토하여 부총장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책임부총장제도에 대해서 수정 가능성을 시사할 뿐 만 아니라, 부총장 제도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정책원은 지난 10월 “책임부총장의 대외적인 직위는 대외협력부총장”이라고 밝혔던 것에 대해 “책임부총장이 대외적 또는 공식적 직위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며 “부총장단 중에서 한 명의 부총장에게 부여하는 선임 부총장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알림

사령

면

〈편집장〉 이수형(경제학 2015)

명

〈편집장〉 박지영(언론정보학 2016)

대학주보 67기 수습기자 모집

모집대상 : 1-3학년 중 3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자

모집일정 :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접수방법 : 대학주보 홈페이지(media.khu.ac.kr/khunews) 참조

문의 : 010-4086-3050